

문화선진충북 '기대반 우려반'

충북도 각종 정책 '결실'... "성과 위주 추진" 지적도

김정호, 2009-05-21 오후 5:32:07

문화선진도를 표방하고 나선 충북도의 각종 문화정책이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는 가운데 기대반 우려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25일 오후 2시 충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3대 대표 문화예술단체인 충북문화원,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공동주관으로 충북문화재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내년 상반기 재단 설립을 앞두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앞으로 도는 다음달 8일 옥천(남부권)과 22일 청주(중부권)에서 각각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도는 공청회가 끝나면 현재 입법 예고된 재단설립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하반기에 세부설립계획 수립, 운영예산 확보,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거쳐 2010년 상반기중에 사무실 마련과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얻을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전담기구인 문화재단은 150억원의 자본금을 출연해 2010년 상반기까지 설립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200억원으로 출연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도립예술단도 오는 29일 창단연주회를 갖는다.

상임지휘자의 석사학위 논란이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단원 선발이 무리없이 이뤄진데다 창단공연을 위한 연습도 차질없이 진행돼 드디어 29일 도민앞에 선을 보인다.

또 기업과 예술단체의 상생을 위한 메세나 결연식도 다음달 4일 열린다.

모두 14개 기업과 14개 지역 예술단체가 손을 잡는 메세나결연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 환영을 하면서도 자칫 성과위주 또는 치적위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메세나 결연사업의 경우 결연에만 초점이 맞춰져 사후 관리 및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많다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진단이다.

아울러 예총과 민예총의 추천을 받아 예술단체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특정 장르의 예술분야에 집중된 것도 문화저변 확대라는 기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도 있다.

문화예술계 인사는 "문화저변 확대와 침체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기자

2009-05-21 오전 12:00:00 © < 충북일보(아이뉴스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